

Measure for Measure의 意味

—Duck의 役割을 中心으로—

權 英 根*

目 次

- I. 序論
- II. 作品의 構造的 側面에서 본 Duke
- III. 'Comforter'로서의 Duke
- IV. 大審判者로서의 Duke
- V. 結論

I. 序 論

Shakespeare의 희극 작품에는 희극적 요소 뿐만 아니라 비극적 요소가 얼마든지 포함되어 있다. 가령 *Comedy of Errors* 같은 초기 희극에서도 극의 시작부터 교수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가 하면 *Love's Labor's Lost* 같은 작품에서는 극의 마지막에 가서 王 France의 죽음에 대한 비극적인 소식으로 'happy ending'이 보류되고 만다. 또 *Merchant of Venice* 같은 작품에서도 Shylock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 자기의 의지를 관철한다면 이 작품은 충분히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다. *Much Ado about Nothing*에서는 Beatrice가 격분하여 Benedick에게 Claudio를 죽여 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대로 시행 되었다면 그것도 충분히 비극으로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Shakespeare는 비극적인 저류를 벗어나 유쾌한 희극의 푸른 바다로 이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희극에 대해서 비평가들은 항상 그 의견을 같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Measure for Measure* 같은 'dark comedy'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 시대가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왔다.

이 작품의 주제나 또 男女主人公에 대해 악평을 한 비평가들이 있다. 예컨대 William Hazlitt

* 人文大學 專任講師

는 이 작품에는 'an original sin in the nature of the subject'¹⁾가 있기 때문에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Samuel Johnson도 "There is perhaps not one of Shakespeare's plays more darkened than this"²⁾라고 악평을 하고 있다. 심지어 S. T. Coleridge까지도 이 작품이 'the most painful—say rather the only painful—part of his genuine works'³⁾하다는 것이다. 또한 A.C. Swinburne은 이 극의 희극적 요소 보다는 비극적 장면들을 더 높게 평가하여 "This play is in its very inmost essence a tragedy"⁴⁾라고 평하고 있다. 이처럼 20C 이전 비평가들의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Shakespeare의 극 가운데는 어떤 형을 부여하여 그리 쉽게 단순화할 수 없는 이질적 요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Measure for Measure*에서는 그같은 요소들이 은밀하고 다양하게 숨어있기 때문에 비평가들 사이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이 작품에서 Friar로 변장해서 극중에서 중형무진, 신출귀몰하게 움직여 타 등장 인물들의 행동을 지시하고 지켜보고, 또 그들에게 설교까지 하면서 劇中の 연출가로서 사건 전개는 물론 조정, 예견까지하여 실지로 이 극을 이끌고 있는 Duke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이 극의 해석은 달라진다. 그런데 대체로 금세기 초까지만 해도 비평가들은 Duke에 대해서도 별로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다.

Almost every critic in this tradition complains about the Duke. Schlegel, Hazlitt, Swinburn (by implication), Mrs Jameson, E. K. Chambers and Quiller-Couch—all find his concealment, his secrecy, his deliberate and unnecessary complication of affairs, unpalatable and morally contradictory.⁵⁾

그러나, 금세기에 와서 다각도로 Duke를 옹호하는 반박 주장이 대두하게 되었다. 가령 G. Wilson Knight, W.W. Lawrence, C.J. Sisson, R.W. Chambers, F.R. Leavis 등이 그런 부류에 속하는 비평가들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가장 심도 있고 설득력 있는 주장은 W.W. Lawrence와 G. Wilson Knight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논리의 전개나 그 접근 방법에서는 서로 다르다.

W.W. Lawrence는 Duke의 행동에 관한 문제는 Elizabeth시대의 'stage conventin'에 속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Neither his character nor his actions can be judged on a realistic basis. His state policies and his moral reforms must be viewed as belonging in the realm of storytelling, not as serious discussion of moral issues, or transcript of life.⁶⁾

1) C. K. Stead ed., Casebook Series: *Measure for Measure* (London: Macmillan, 1971), p.47.

2) *Ibid.*, p. 37.

3) *Ibid.*, p. 45.

4) *Ibid.*, p. 63.

5) *Ibid.*, pp. 13~14.

6) W. W. Lawrence, *Shakespeare's Problem Comedie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31), pp. 113~114.

공작이 하는 모든 일은 당시 극장의 관례에 따라 절대권을 가진 자의 행동으로 정당한 것이고 관객들도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G.W. Knight는 Duke이 대단히 모순적이고 인위적이라는 점을 아예 묵살한다. 이 작품에서는 그와 같은 면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있다손 치더라도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극을 잘 이해하려면 'to read it on the analogy of Jesus' parables'⁷⁾한다고 주장하면서 Duke의 대사와 행동을 Jesus Christ의 그것들과 비교하고 있다. 중심 인물인 Duke은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는 자이며 'Supreme Power'와 비교되어 이 극에서 행하는 모든 윤리적인 태도는 구세주의 그것과 부합한다는 것이다.⁸⁾ 따라서 그의 행동은 그 자체로써 아무런 모순이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Lawrence는 Duke을 Stage Duke으로, Knight는 'Divine Power'로 봄으로써 앞서 있어왔던 악령들을 일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Duke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에는 아직도 석연치 않은 모호함이 병존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 작품의 구조적 측면에서 Duke의 위치와 역할을 다른 방법으로 조명해 봄으로써 *Measure for Measure*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作品의 構造的 側面에서 본 Duke

Duke을 막연하게 Stage Duke으로 또는 'Divine Power'로만 본다면 자칫 안일한 작품 해석이 될 수도 있다. Duke를 좀 더 밀도있게 관찰하여 작품 해석의 열쇠를 찾기 위해서는 그의 위치를 작품의 전체적 구조 속에서 또 다른 방법을 적용해서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작품의 구조 속에서 Duke의 역할을 살펴보면 우선 그는 한 도시의 통치자로 등장한다. 그 다음 그 도시를 떠났다가 다시 전지 전능한 Friar로 등장 갖가지 사건을 전개하여 발전시킨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심판자로 등장 이 극을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결국 한 인물이 세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Duke의 역할이 예수크리스도의 역할과 일치함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로 지상에 온 예수는 이 세상의 영적 통치자로 있다가 떠났다. 그후에 그분은 다시 성령으로 다시 오게되어 지금 이 세상에서 큰 힘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대심판자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올 것이다. 물론 이때 三位一體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고 다만 그 역할만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Duke의 통치자→Friar→대심판자로의 순환 형태는 예수의 영적 통치자→성령→대심판자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면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작품 속에서 찾아 보기로 하자.

Duke은 이 극의 처음 부분에서 그 통치자로서의 직책을 Angelo에게 맡기고 떠난 직후 수도원에 가서 Vienna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G. Wilson Knight. *The Wheel of Fire* (London: Methuen, 1949), p. 83.

8) *Ibid.*, p. 74.

We have strict statues and most biting laws,
 The needful bits and curbs to headstrong jades,
 Which for this fourteen years we have let slip;
 Even like an o'er-grown lion in a cave
 That goes not out to prey. Now, as fond fathers,
 Having bound up the threatening twigs of birch,
 Only to stick it in their children's sight
 For terror, not to use, in time the rod
 Becomes more mock'd than fear'd: so our decrees,
 Dead to infliction, to themselves are dead,
 And Liberty plucks Justice by the nose,
 The baby beats the nurse, and quite athwart
 Goes all decorum. (I, III, 19~31).

미덕에도 열병이 성행할 정도로 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원만한 질서 유지는 곤란하게 되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장 'unloose this tied-up justice' (I. III. 32)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이미 때가 늦은감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질서를 회복 시켜야만 한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서 한가지 묘수는 일단 대권을 물려주고 뒤에서 다른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조정 발전시켜 화합과 융화의 도시로 이끌어 보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에서 Duke은 Vienna를 떠난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나야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Nevertheless I tell you the truth; It is expedient for you that I go away, for if I go not away, the Comforter will not come unto you; but if I depart, I will send him unto you.⁹⁾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예수는 떠나 가야만 되고 또 떠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육체로 계신 구세주는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지만 다시 오는 'Comforter'(성령)은 'the spirit of truth'¹⁰⁾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¹⁾

요컨대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이유와 Duke가 Vienna를 떠나가는 그것이 동일하다. 따라서 Duke도 'Comforter'와 마찬가지로 Friar로 변장하여 다시 등장 자유 자재로 이 극 안에서 궁극적 목적을 향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 도시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는 새로운 힘이 출현해야 하는데 그 힘은 'Comforter'의 그것과 동일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Mariana가 Duke를 'a man of comfort'(IV. i. 8)라고 부르고 있는 점이다.

9) *Holy Bible*, St. John 16: 7.

10) *Ibid.*, St. John 14:17.

11) 성령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사도행전 2장~5장을 참조할 것.

Vienna를 떠났다가 다시 등장한 Duke, 그는 'Comforter'의 입장에서 약하고 억울한 모든 인물들에게 참으로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해결을 지어주기 위해서 갖은 고난과 고통을 참고 도리어 피고인으로서 곤욕을 치르기까지 한다. 그는 예수와 마찬가지로 지상적인 권력과 영화를 잠시 보류하고 Friar로 변장해 감옥으로 사형수를 방문하기도 하고 실의에 빠진 여인을 찾아 격려해 주며, 불법한 권력에 압박받고 있는 남매를 구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한다. 그는 현명하고 검허하며 부지런하고 참을성이 많다. 그는 전형적인 인류의 봉사자다. Shakespeare는 그에게 최상의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마치 예수가 'Comforter'로 등장하여 큰 힘을 발휘하듯이 Duke의 행동은 정상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Duke를 'Comforter'와 동일시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그러면 Duke가 Escalus를 만나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부분을 살펴보자.

Not of this country, though my chance is now
To use it for my time. I am a brother
Of gracious order, late come from the See,
In special business from his holiness. (III, ii, 211~214)

여기에서도 Duke의 'Comforter'임이 암시되어 있다. 즉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the See' 즉 'The Holy See'에서 'his Holiness'로 부터 'special business'를 띄고 파견되었다는 것은 'Comforter'가 하늘에서 특별한 목적과 임무를 띄고 지상에 강림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또 다른 큰 증거를 찾기 위해 이 극의 대단원이라 할 수 있는 Duke가 대심판자로 入城하는 장면과 예수의 재판 장면과를 비교해 보자. Friar로 변장하고 등장한 Duke은 그 동안 극중 모든 사람과 만나 자기의 의도대로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고 지시한다. 급히 떠날 때의 약속 "We shall write to you."(I. i. 55)대로 Provost를 시켜 Angelo에게 한통의 편지를 전달한다.

Now will I write letters to Angelo,
The Provost, he shall bear them, whose contents
Shall witness to him I am near at home;
And that by great injunctions I am bound
To enter publicly. Him I'll desire
To meet me at the consecrated fount
A league below the city; (IV, iii, 92~98)

이 편지의 내용 중 의미 심장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왜 직접 入城하지 않고 城에서 'a league' 떨어진 'The consecrated fount'에서 만나서 入城하겠다는 것인가? 같은 'dark comedy'인 *All's Well that Ends Well*에서는 마지막에 포이 자기의 권좌에서 Bertram을 용서하는 등 모든 것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독자 뿐만 아니라 Angelo 자신도 의심하고 있다. 그는 Duke의 정신 상태를 염려 하면서 이것은 'in most uneven and distracted manner'(IV. iv. 2)로써 "Why meet him at the gates and redeliver our authorities?"(IV. iv. 4)라고 강한 의혹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깐 성경으로 돌아가 보기로 하자.

For the Lord himself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shall rise first: Then we which are alive and remain sha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¹²⁾

성경에 따르면 구세주는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게 되어 있고 그때 지상으로 직접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떨어진 ('A league below the city') 공중에 ('at the consecrated fount') 재림했다가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성경적 계획과 이 작품의 대단원에서 Duke의 入城사이에는 그 상황이 똑 같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入城時 'to enter publicly'와 재림시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archangel and with the trump of God'도 그 정황이 동일하다. 더구나 Duke이 入城時 "Twice have the trumpets sounded"(IV. vi. 12)라는 Friar Peter의 대사와 위에 인용한 예수 재림에 있을 'the trump of God'를 비교하면 세밀한 부분까지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요컨대 이 작품에서 Duke이 Vienna를 떠났다가 변장하여 Friar로 등장, 계획대로 극을 진행시킨 뒤 마지막에 대심판자로 등장하는 것과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나 다시 'Comforter'로서 지상에 오셨다가 이 세상 마지막에 영광의 대심판자로 재림하게 된다는 성경의 내용과는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Ⅲ. 'Comforter'로서의 Duke

이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Duke의 역할은 'Comforter'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음을 우선 작품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보다 세밀한 부분에서 'Comforter'의 암시를 받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이제 작품의 줄거리를 살펴면서 더 구체적인 Duke의 'Comforter'로서의 역할과 그에 따른 행동의 당위성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이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 보자.

Duke Vincentio가 Vienna를 떠나자 Angelo는 원칙대로 법령을 시행하기 시작한다. 일견 처음 보기에는 강직하고 엄격하여 비겁한 재판관이라는 인상은 주지 않는다. Isabella가 그에 대해 "A due sincerity governed his deed/Till did look on me"(V. i. 144)라고 지적한 것처럼 그의 대리관으로서의 출발은 일단 정당하고 당당하다. 정의와 율법을 강조하는 그에게서 Elizabethen

12) *Holy Bible*, 1 Thessalonians 4:16~17.

시대의 통치자의 의무인 'to see well to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¹³⁾를 찾아볼 수 있다.

앞에서 Duke와 예수크리스도와의 관계, 다시말해서 Duke의 'Comforter'로써의 역할을 밝혔거니와 이 작품에서 Angelo는 神의 대리자로서 처음에는 정의 구현에 몰두한다.

We must not make a scarecrow of the law,
Setting it up to fear the birds of prey,
And let it keep one shape till custom make it
Their perch, and not their terror. (II, i, 1~4)

대권을 물려준 Duke도 그의 이런면을 이미 감지하고 다음과 같이 그의 인간성을 소개한다.

Lord Angelo is precise;
Stands at a guard with Envy; scarce confesses
That his blood flows; or that his appetite
Is more to bread than stone. (I. III, 50~53)

Lucio는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니 만큼 그의 견해는 더욱 신랄하다.

a man whose blood
Is very snow-broth; one who never feels
The wanton stings and motions of the sense;
But doth rebate and blunt his natural edge
With profits of the mind, study and fast. (I. IV, 57~61)

이렇게 어느 모로 보나 철두철미하고 빈틈이 없는 Angelo는 오래 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사생아 단속법에 의해 맨 처음으로 Claudio를 검거한다. 그는 Juliet와 결혼은 약속했지만 지참금 문제로 정식 결혼식이 없이 동거생활을 했고 도중에 그녀가 임신을 해서 이 법령에 저촉됐다. 이에 따라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흘 내에 형이 집행되도록 조치가 취해진다. Duke의 대리자로서 Angelo는 이렇게 법과 정의에 충실한다. 그러나, 처음으로 사형언도를 받은 Claudio의 여동생 Isabella에 대한 유혹 때문에, 자신의 정신력을 확신하고 있던 그도 내적 갈등과 자기 붕괴의 첫과정을 겪게 된다. 그는 Isabella의 호소하는 듯한 아름다움에 직면했을 때에도 일단 정의를 내세운다. 그 반면 오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Isabella는 상대방의 마음을 용해시켜 버릴 듯한 설득으로 Angelo에게 자비를 호소한다.

13) E. M. Pope, "The Renaissance Background of *Measure for Measure*" in *Shakespeare's *Tragedy 2**, ed. A. Nicoll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49), p. 74.

Well, believe this:

No ceremony that to great ones longs
Not the King's crown nor the deputed sword,
The marshal's truncheon, nor the judge's robe,
Become them with one half so good a grace
As mercy does. (II. ii, 58~62)

Angelo와 Isabella의 토론은 정묘하고 재미있다. 왜냐하면 Angelo는 자기의 율법적인 정의와, 철학적인 지식을 과시하고 Isabella의 호소는 종교적 교훈을 받은 수녀 초년생의 신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부분(II. ii.)이 *Measure for Measure*의 주제를 잘 보여주는 부분으로 정의의 대 자비, 전통적 율법 대 청교도적 은혜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 작품 전체에 대해 M. C. Bradbrook는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다.

This play might be named the contention between Justice and Mercy, or False Authority unmasked by Truth and Humility; Angelo stands for Authority and for Law, usurping the place of the Duke who is not only the representative of Heavenly Justice but of Humility, whilst Isabella represents both Truth and Mercy.¹⁴⁾

결국 이 상대적인 논쟁은 여기에서 간단히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문제의 열쇠는 Duke-Friar가 쥐고 있고 그 답은 'heavenly justice'의 화신인 Duke이 대심판자로 활동하는 이극의 대단원까지 기다려야만 된다.

이제 정의와 율법만을 내세우는 Angelo는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유혹과 정의와 법과 자비와 권위에 대한 혼선으로 다음과 같이 자문 자답하고 있다.

O fie, fie, fie!

What dost thou, or what art thou, Angelo?
Dost thou desire her foully for those things
That make her good? O, let her brother live!
Thieves for their robbery have authority,
When judges steal themselves. What, do I love her,
That I desire to hear her speak again?
And feast upon her eyes? What is't I dream on?
O cunning enemy, that, to catch a saint,
With saints dost bait thy hook! (II. ii, 172~181)

14) M. C. Bradbrook, 'Authority, Truth and Justice in *Measure for Measure*', in *The Review of English Studies* XVII No.68(1941), p. 385.

이 심각한 내적 성찰이 있는 후 그는 심한 양심적 갈등 속에서 맹렬한 私慾을 Isabella에게 강요한다. 그와 동시에 법령은 법령대로 집행하려 한다. 그는 자기의 지위와 법률을 마음대로 이용하여 선과 악을 바꾸어 私慾의 미끼로 이용하려고 한다. 그는 그녀에게 “Plainly conceive, I love you.” “He shall not (die), Isabella, if you give me love.”(II. iv 140, 143)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그녀는 “Ha? Little honour, to be much believ'd, / And most pernicious purpose! Seeming, seeming!(II, iv, 148)이라고 당장 거절한다. Richard P. Wheeler는 이 장면에서 Othello를 연상하고 있다.

The saintly Isabella provokes Angelo's brutal assault upon her virtue; the Collapsing split in Angelo's sensibility is akin to Othello's futile effort to separate the sexual from the pure Desdemona.¹⁵⁾

Shakespeare는 Angelo를 희극적인 인물로 만들 수도 있었고 혹은 유혹에 저항하여 참된 녀의 고뇌를 체험하는 비극적인 인물로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안이하게 Angelo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다. Shakespeare의 목적은 비극이 아니었고 희극이었다. 그가 희극이라 할 때 그것은 으레히 곤란한 문제에서 현실적인 해결을 주어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最大限의 행복을 확보해 주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어떻게 Isabella의 정조를 깨치지 않고도 또 결말에 가서 실로 Angelo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인물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냐에 있다. 여기서 Shakespeare가 생각해 낸 것이 이미 *All's well that ends well*에서 시험해 본 'substitution'(代擲)이며 그것을 뒤에서 'Comforter'처럼 조정 중재 실행하는 인물은 Friar-Duke이다.

Duke은 Friar로 변장하고 사형 집행을 대기 중인 Claudio를 방문하여 “Be absolute for death: either death or life / Shall thereby be the sweeter... (III. i. 5)로 시작하는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한다. 그런데 이 훈계에 대해 “despite his Friar's gown, the Duke offers no hint of Christian consolation”¹⁶⁾이라고 Friar-Duke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는 평자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작품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 부분의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J. W. Lever가 “Superficially the Duke's homily to Claudio, 'Be absolute for death,' might seem to be a statement of 'doctrine' by Holy Church in the guise of a friar”¹⁷⁾라고 밝히고 있듯이, 이 설교는 'Holy Church'의 주파자인 'Comforter'의 설교인 것이다. 따라서 이 설교 자체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 설교를 듣고 반응을 보이는 다음과 같은 Claudio의 말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15) Richard P. Wheeler, *Shakespeare's Development and the Problem Comedies*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1), p.128.

16) Clifford Leech, “The Meaning of *Measure for Measure* in *Shakespeare the comedies*, ed., Kenneth Muir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65), p.112.

17) J. W. Lever ed., *The Arden Shakespeare Measure for Measure* (London: Methuen, 1965), p.lxxxvii.

To sue to live, I find I seek to die.
And seeking death, find life. (Ⅲ, i, 42~3)

그런데 위의 대사는 잘 살펴보면 성경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 있다.

For whosoever will save his life shall lose it, and whosoever will lose his life shall for my sake find it.¹⁸⁾

결국 생과 死에 대한 초월적인 대답이 나오게 된 연유는 잘 살펴보면 Friar의 설교가 결코 과격하거나 무정한 것이 아니고 'Comforter'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죽기로 결심했던 Claudio지만 생에 대한 애착이 일단의 철학론으로 쉽게 해소될 수는 없었다. 그는 Dante의 지옥편을 연상케 해주는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실토한다.

The wearist and most loathed worldly life
That age, ache, penury and imprisonment
Can lay on nature, is a paradise
To what we fear of death. (Ⅲ. i, 128~131)

모든 인간이 갖일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렵고 부담스런 심정이 독자의 연민을 정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어떻게 해서라도 목숨만은 살려 보자는 생각은 결국 동생의 정조까지 희생시킬 제안을 하기에 이른다.

Sweet sister, let me live.
What sin you do to save a brother's life.
Nature despenses with the deed so far
That it becomes a virture. (Ⅲ. i, 132~5)

이에 대한 Isabella의 대답은 "O, you beast!/O faithless coward! O dishonest wretch!... Die perish!"(Ⅲ. i. 135~143)라고 저주 함으로써 劇은 점점 복잡해져 간다.

Isabella의 이같은 태도에 찬·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Is Isabella to be admired or despised? Some think her almost divine in her virtue; others almost beneath contempt in her self-rightousness.¹⁹⁾

18) *Holy Bible*, St. Matthew 16 : 25.

19) Harold C. Goddard, *The Meaning of Shakespeare* (Chicago:Chicago Univ. Press, 1951), p.440.

비난하는 측은 Isabella가 개성이 강한 여자인 것은 하나 내적 갈등도 없이 즉각 거절하는 점에 있다. 그러나 Isabella가 이 劇中에서 'sainted purity'²⁰⁾를 대표한다면, 또 Elizaethan시대에서 가장 고귀한 덕목으로 정조를 들고 있다면 그녀의 거절은 단순히 냉혹하기만 하다고 몰아 붙일 수 없을 것이다. H. C. Goddard는 Imogen, Cordelia, Rosalind, Desdemona도 그 같은 상황에서는 Isabella와 똑 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The notion that Isabella is just a self-righteous prude guarding her precious chastity simply will not stand up to the text"²¹⁾라고 Isabella를 옹호하고 있다.

Friar-Duke는 이 난처한 상황을 알고 난 뒤 그 해결을 위해 Angelo와 약혼까지 했다가 파혼당한 Mariana로 하여금 Isabella에 代捧치자는 계획을 세운다. 이 代捧에 대해 Mary Lascelles는 다음과 같은 利點이 있다고 보고 있다.

That a harsh tale may be softened by the substitution of a less interesting victim for one in whose sufferings we have come to feel concern. Shakespeare used this device three times: on behalf of Claudio, Isabel and Barnardine.²²⁾

극중에 보다 관심이 덜 쓰이는 인물을 대신하는 것으로 劇의 진행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면 가치가 있다. 또 W. W. Lawrence가 지적했듯이 중세 문학 작품에는 여주인공의 난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여자가 그녀를 대신하여 침대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당시 약혼식만 끝나면 동침을 해도 된다면²³⁾ 이 代捧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기 보다는 차라리 劇進行에 도움을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代捧 계획에 의하여 Isabella가 Angelo와 동침하기로 약속한 밤중에 Mariana가 대신 Angelo의 방에 들어간다. 그리하여 그 대가로 Claudio의 목숨을 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Claudio의 생명과 Isabella의 정조를 구제함 뿐만 아니라, Mariana의 소원을 풀어 주는 동시에 Angelo를 응징한다는 것이 Duke-Friar가 세운 계획의 골자다. Duke-Friar의 계획은 곧 실행에 옮겨지지만 그 결과는 그의 예상대로 되지는 않았다. 야욕을 채운 뒤에 Angelo는 석방된 Claudio의 입이 두려운 나머지 즉시 그의 목을 잘라 바치라고 Provost에게 명령한다. 이것은 사건 해결에는 엄함을 주지만, 그것을 해결하려는 작가의 배전의 노력은 작품의 효과를 더욱 다양하게 만들었다. 당황한 Duke는 Provost와 상의하여 다시 Barnardine의 목으로 代捧치려 한다. 그런데 Barnardine은 9년째 징역을 사는 중죄인으로서 그도 Claudio와 같은 날 집행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죽기를 거절함으로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때에 마침 죄수 한명이 病死했는데 나이나 모습이 Claudio와 비슷하다. 그래서 그의 목을 잘라 Claudio의 그것이라고 속여 Angelo에게 갖다 바친다. 이렇게 해서 Claudio의 생명은 代捧을 통해 구제 되었고

20) G. Wilson Knight, *op. cit.*, p. 74.

21) Harold C. Goddard, *op. cit.*, p. 441.

22) M. Lascelles, *Shakespeare's Measure for Measure* (London: Univ. of London, The Athlone Press, 1953), p. 38.

23) W. W. Lawrence, *op. cit.*, p. 94.

Isabella의 정조는 보전되었다. 남은 문제는 Angelo를 응징하면서 한편 Mariana의 소원을 풀어 주는 일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아무래도 대심판자로 등장하는 Duke에게 다시 기대를 걸어야 할 것이다.

IV. 大審判者로서의 Duke

Shakespeare는 사건 해결에 흔히 재판 장면이나 기타 의식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All's well That End's Well*에서는 극의 종국에 가서 왕이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고, *2Henry IV*에서는 새로 등극한 군주 Henry V가 Falstaff를 추방하는 장면이 있고 *The Merchant of Venice*에서는 Portia가 정의와 자비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Venice의 법정이 있다. 그런데 *Measure for Measure*에서도 대심판자로 등장하는 Duke은 이 劇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의 Duke은 정의와 장엄과 판단면에서 'Power divine'(V. i. 367)처럼 등장한다. 이미 지적했듯이 Duke의 入城은 대심판자로서의 예수의 재림과 동일하다 했거니와 이 마지막 판결 장면에서 Duke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 하겠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의 Duke의 판결 과정과 내용을 살펴 보면 이 작품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우선 이 작품의 의도를 파헤치기 위하여 *Measure for Measure*라는 제목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한 작가가 어떤 작품에서 표출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단적으로 표현한 상징이 제목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그 제목만 읽고도 그 내용을 유추내지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징으로서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Shakespeare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작품이 그 주제와 제목이 근접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Measure for Measure*란 제목에서도 우선 Shakespeare의 의도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Measure for Measure*란 직접적인 표현을 Shakespeare의 작품 중에서 찾아보면 *3Henry IV*에서 Earl of Warwick의 대사 'Measure for Measure must be answered.'(II. vi. 55)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은 劇中の 복수 주제를 총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 보았듯이 이제 완숙기에 접어든 Shakespeare로서는 초기작인 *3Henry VI*와는 달리 *Measure for Measure*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음이 틀림없다. 이같은 생각에 대한 확증은 W. W. Lawrence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The title 'Measure for Measure' is, however, contradicted by the final decisions of the Duke, who concludes that mercy should temper justice, and that the strict letter of the law should not be enforced.²⁴⁾

24) W. W. Lawrence, *op. cit.*, p.114.

*Measure for Measure*란 제목 자체의 보편적 의미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Measure'에 'Measure'로 대응 되어서 처참하게 벌을 내리는 심판이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happy ending'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Lewrence 자신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이유는 Shakespeare가 희극 전통에 따라 'happy ending'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희극 전통만을 따른 것이라고 하기엔 지금까지 고찰해 온 바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Measure for Measure*란 제목에 관심을 갖은 비평가 중에 E. M. Pope가 있다. 그녀의 다음 견해를 살펴 보자.

"*Measure for measure* has a highly significant title, a phrase which not only sums up the basic theme of the play, but is brought out and emphasized at the crisis in the last act."²⁵⁾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위기적 상황에서 Shakespeare의 의도를 찾고 있는 것이다.

The very mercy of the law cries out
Most audible, even from his proper tongue:
'An Angelo for Claudio; death for death.
Haste still pays haste, and leisure answers leisure;
Like doth quit like, and Measure still for Measure.'(V. i, 405~409)

위 내용은 철저히 "Whoso sheddeth man's blood, by man shall his blood be shed."²⁶⁾와 "Breath for breath, eye for eye, tooth for tooth."²⁷⁾에 부합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Shakespeare가 노리고 있는 것이 이런 구약적인 율법과 제약에 있는 것일까? E. M. Pope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Shakespeare는 이 제목을 산상보훈(Sermon on the mount)에서 생각해 냈고 그 전체적인 내용은 'Christ's great pronouncement on Christian forgiveness'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⁸⁾ 그녀는 *Measure for Measure*의 목적은 등장 인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악을 용서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다 가벼운 벌로써 징계한다는 'Power divine'의 의무를 증명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같은 의도를 알 수 있는 좋은 예로 "He who the sword of heaven will hear/ Should be as holy as severe"(III. ii. 253)로 시작되는 Duke의 명상적 독백을 들고 있다.²⁹⁾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대심판 장면을 살펴보자. Duke는 이제 가면을 벗고 심판자의 신분으로 귀환하여 Angelo와 Escalus의 영접을 받는다. 그 때에 미리 짜두었던 각본에 따라 Isabella가 공

25) E. M. Pope, *op. cit.*, p. 66.

26) *Holy Bible*. Genesis. 9 : 6.

27) *Ibid.*, Leviticus. 24 : 20.

28) E. M. Pope, *op. cit.*, p. 66.

29) *Ibid.*, p. 80.

작 앞에 나와 호소한다. 또 Mariana도 나와서 Angelo와의 밀회의 사실을 증언한다. 이에 둘 다 미친 여자로 취급 당한다. 이들을 교사한 Friar가 소환된다. Vencentio 공작은 중도에 퇴장하여 Friar로 변장하고 나온다. 이때 Angelo는 그를 체포하려 한다. 그러나 Duke는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Angelo를 굴복 시킨다. Angelo로서는 칭찬 벼락같은 놀라움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부정을 시인하고 자기 죄를 자복한다.

O my dread lord,
I should beguiltier than my guiltiness
To Think I can be undiscernible,
When I perceive your Grace, like power divine,
Hath looked upon my passes,(V, i, 364~368)

갑자기 모든 죄를 고백하는 Angelo에 대해 평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나, 지금까지 계속 지적해 왔듯이 이때의 공작은 대심판자로서 재림한 심판자로서의 예수와 같다. 그렇다면 Angelo가 갑자기 모든 것을 털어 놓는 것은 당연하다. Lawrence도 “The conversion of the villain makes him, as else where in Shakespeare's play, a suitable husband for a virtuous heroine”³⁰⁾라고 Shakespeare의 劇傳統에서 답을 찾고 있다. 아울러 R. Southall도 Angelo의 회개는 ‘Power divine’ 때문이고 이것이 그를 갱생의 길로 이끌고 있다³¹⁾고 보고 있다.

Angelo가 죄를 자백한 뒤 대심판자로서의 Duke은 Mariana와 Angelo를 정식으로 결합하도록 결혼시켰지만, 뜻 밖에도 Angelo에게 사형을 언도한다. 그 이유는 물론 그가 처녀의 순결을 더럽혔고 또 약속도 위반하여 Claudio를 사형에 처했다는 이중의 범죄 때문이다. Mariana는 공작에게 결혼을 허락해 놓고도 남편을 처형하는 것은 우롱이 아니냐고 항의한다. 여기에 Isabella도 가세하여 Mariana를 대신해서 무릎을 꿇고 관대한 처분을 간청한다. 또 Angelo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어 변호해 주기까지 한다. 이에 대해서 Duke는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지만, 내심으로는 찬동한다. Provest는 정식 승인이 없이 오직 Angelo의 명령만으로 Claudio를 처단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일단 파면당하지만, 결국 그가 Claudio와 Barnadine의 두 생명을 구제하는 데 협조했다는 공적 때문에 뒤에 보다 높은 지위에 올려 준다. 실형을 받은지 9년이나 된 Barnadine도 공작 앞에 불러 나온다. 공작은 그의 지상에서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며, 나머지 양심에 관한 죄악만은 Friar Peter에게 일임한다. 그 다음에는 Claudio가 가장한 상태로 Isabella 앞에 나타난다. 공작은 그가 죽은 Claudio와 모습이 같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사형을 취소한다. Claudio가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Isabella는 오빠의 生存事實에 기뻐서 날뛰고 있다. 이때 공작은 Isabella에게 “Give me your hand, and you will be mine./ He is my brother too.”(V, i, 488)라고 제안한다. 그리고 Angelo에 대해서도 관용과 사랑으로 다음과 같이 혼유한다.

30) W. W. Lawrence, *op. cit.*, p.114.

31) R. Southall, ‘Measure for Measure and the Protestant Ethic’ in *Essays in Criticism*. Vol. 10 (Oxford, 1960), p.17.

By this Lord Angelo perceives he's safe;
 Methinks I see a quickening in his eye.
 Well, Angelo, your evil quits you well.
 Look that you love your wife: her worth, worth yours. (V. i, 492~495)

그간 공작을 몹시 중상하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V. i. 497) Lucio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못을 깨닫게 한 후 펍 유모스러운 처단을 내리고, 끝으로 Isabella는 그 자신의 아내로 맞이 할 것을 암시함으로써 이 희극은 끝난다.

결국 Shakespeare는 *Measure for Measure*란 작품에서 그 제목이 주는 경직된 인상을 뛰어넘어 한 차원 높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작품속의 모든 인물들에게 "Peace be with you!"(III. ii. 253)을 제공하고자 했음이 분명하다.

V. 結 論

Shakespeare의 'dark comedies'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탐색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위엄성을 거부하고 고매한 인간성의 다른 측면에 있는 인간의 결점과 실망감이나 쓸쓸함을 웃음과 재담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Troilus and Cressida*는 전쟁 영웅들의 외면적 영광의 공허함과 낭만적 사랑의 환멸을 보여 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All's Well that End's Well*에서는 왕의 불치병을 치료한 똑똑한 Helena가 선택한 배우자 Bertram의 사악함이 그려져 있다. *Measure for Measure*는 외면적 정의와 저열한 정욕과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Measure for Measure*가 현대에 와서 새로운 주목을 받는 것은 이 작품이 인간 본성의 외면과 내면을 아주 신랄하고 진지하며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ngelo의 엄격성 뒤에 내적으로 숨어 있는 욕정과, 그 욕정을 만족하고자 도모하는 위선, Isabella에게 쉽게 유혹당하는 무방비성은 그가 시험당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과 그의 독백에서 볼 수 있는 자기 혐오감으로 판단해 보아 우리도 그와 똑 같은 인간적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Isabella도 걸으로는 절대 순수의 영혼을 갈망하면서도 오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를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게 되는 데 이는 그녀도 감정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인간적 약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laudio는 자신이 받아야 할 벌책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수긍하는 태도와 여동생의 정조를 희생하고자라도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는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본능을 쫓고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성격적 고찰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그 문제의 중심은 Duke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다. 따라서 Duke을 단순히 'Stage Duke'이나 'Divine Power'로 고정시켜서 생각하기 보다는 그 역할에 따라 통치자로서의 Duke, 'Comforter'로서의 Duke, 또 절대적 심판권을 가지고 재림하는 구세주와 대응하는 대심판자로서의 Duke으로 구분

하여 이 작품을 고찰함으로써 작품에 내재한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고, 이렇게 순리적으로 해결 됨으로서 *Measure for Measure*에서 Shakespeare가 노리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Summary

The Meaning of *Measure for Measure*

Kwon Young-keun

Critics are always liable to mirror their own dispositions, and the temper of the age, in their assessment of Shakespeare. Observing the traditional criticisms of the *Measure for Measure* we can find this work especially has called forth a remarkable diversity of opinions, many problems being appeared to interpret it unless we confirm the Duke's character and role.

W. W. Lawrence considers the Duke as a 'Stage Duke,' G. W. Knight as a 'Divine power' which make a full interpretation of the *Measure for Measure* be obtained. There, however, are still many kinds of problems not to be understood. A different method, therefore, to confirm the Duke's role is applied in this study to solve them.

Examining the structure of the work closely, we can see the Duke is exactly related to the 'Comforter,' the Holy Spirit and the Judge in the Last of Judgement. If the Duke can do the role of the 'Comforter,' as a matter of fact, the problems concerned can be solved easily for the 'Comforter' or the Judge can do anything what He wants. As a result of the parallel, we can understand more exactly and fully than ever what Shakespeare wants to manifest in the *Measure for Measure*.

The *Measure for Measure* ends happily with a series of unions of love, which, but for the Duke who has shown the importance of love and forgiveness, might have ended with a pile of corpses as in Hamlet. In the final Judgement of the play, the Duke pardons all in contradiction of the title of the play. But the state of Vienna is not same as at the beginning of the play. The Duke has achieved reforms of Vienna not by punishing but by making them repent, and persuading them to make a good living

The primacy of mercy over strict justice is asserted at various points. It is an ethical formulation acceptable to us and to Shakespeare. But that *Measure for Measure* was written to illustrate this moral truism is a narrowing view against which we may find the play itself rising in protest.